

혈액 및 복막투석 환자에서 뇨뇨의 의미

진은선, 김희진, 이태원, 임천규, 김명재
경희의료원 내과학 교실

배경: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하는 경우 소변검사상 뇨뇨의 빈도가 높다. 이는 정상인에 비해 소변량이 줄어있거나 거의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축뇨가 형성되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뇨뇨가 요로감염의 지표로서 지니는 의미를 재고하기 위하여 경희의료원에서 투석중인 43명의 혈액투석환자와 38명의 복막투석환자를 대상으로 만성 신부전의 기저질환, 뇨뇨의 발생빈도, 요로감염의 증상유무, 균배양 검사상 균검출여부, 하루 소변량 동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대상 및 방법: 각 환자들에게 신부전의 기저질환의 종류, 요검사, 하루 소변량 측정, 뇨뇨가 있는 경우 뇨배양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요로감염의 증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였다. 증상이 있으면서 뇨뇨와 함께 균배양 검사상 균이 검출되는 경우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결과: 43명의 혈액투석환자중 22명의 환자에서, 복막투석 38명중 19명에서 뇨뇨를 보였으며 배양검사상 세균이 검출된 경우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2례, 무증상의 경우가 1례로 뇨뇨가 있음에도 균배양 검사상 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증상이 있는 세균성 뇨뇨의 경우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의 소실과 뇨뇨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뇨뇨를 보이는 경우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성 신증의 경우가 혈액투석 22례중 10례, 복막투석 19례중 15례로 가장 많았다.

결론: 투석중인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뇨뇨의 빈도가 높았으며 당뇨병성 신증에 의한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특히 뇨뇨가 많이 발견되었다. 뇨뇨를 보이는 환자에서 요중의 백혈구 수치가 높아도 균배양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요로감염의 증상을 보이는 빈도는 낮았다.

P106

기능부전 혈액투석동정맥루 치료법으로서 경피경관혈관성형술의 임상적 의의 및 효과

정연순, 김민대, 신호식, 김흥기, 임학, 고신의대 내과학교

목적: 기능부전 혈액투석동정맥루의 치료로서의 경피경관혈관성형술의 임상적 의의와 장기 개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기능부전 혈액투석동정맥루로 경피경관혈관성형술을 시행받은 48명의 환자(총 56회)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적 특성과 초기 및 장기 개통률을 분석하였다. 환자의 연령, 당뇨병의 유무, 만성신부전의 병력기간, 동정맥루의 종류와 사용기간, 협착의 위치와 길이, 잔여협착의 정도 등이 장기개통률에 미치는 영향을 Kaplan-Meier method에 의한 log-rank tes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시술의 초기 성공률은 80%였으며 성공한 예의 개통률은 6개월 63.3%, 12개월 44.4%, 24개월 11.9%였다. 환자의 연령, 당뇨병의 유무, 만성신부전의 병력기간, 동정맥루의 종류와 사용기간, 협착의 위치와 길이, 잔여협착의 정도 등이 장기 개통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없었다. 혈관성형술을 실패한 경우는 총 11예로 대량혈전으로 인한 완전폐쇄가 6예, 광범위한 과도한 혈관협착이 5예였다. 정맥 조영술의 적응증 중 투석 중 동정맥루 혈류속도가 감소된 23예에서 혈관성형술 전후로 혈류속도를 비교한 결과, 혈관성형술 후 유의하게 혈류속도가 증가하였다(투석중 혈류속도: $165.0 \pm 39.7 \text{ ml/min}$ vs $225.4 \pm 22.7 \text{ ml/min}$, $p=0.007$). 시술과 연관된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동정맥루 협착이 동반된 혈액투석 환자에서 경피적경관혈관성형술은 안전하고 비교적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료되나, 장기적 개통률과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맥조영술의 적응증에 대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